

지노비요프의 호모 소비에티쿠스論 읽기

심 지 은
(한림대학교)

I. 들어가며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지도 20년이 지났다. 포스트소비에트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학적 관점에서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에트 체제와 포스트소비에트 체제라는 역사적 지층을 통과한/통과하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와 러시아인은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특히 러시아국내·외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담론들에서 드러나는바, 호모 소비에티쿠스로서의 삶을 강요받았던 어두운 과거와 이런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하고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지노비요프의 소설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러시아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해줌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가늠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요컨대, 이 글은 소비에트와 소비에트인/러시아와 러시아인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쌓는 기초 작업의 하나이다.

II.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공산 혁명 후 볼셰비키당은 소비에트 체제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체제에 순응하는 새로운 소비에트 인민, 즉 ‘호모 소비에티쿠스(Homo Sovieticus)’ 양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이 가져야할 새로운 내적 가치는 개인의 이해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주의 체제의 시각에 입각해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를 배격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이었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 인간형의 이상적인 모델은 오스트롭스키가 쓴 전형적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1934)의 주인공 파벨 코르차긴과 같은 초인·영웅이었다.

이상화된 소설 속 주인공 말고도 실제 삶의 질료에서 발굴해낸, 단련된 호모 소비에티쿠스들도 허다했다. 그 가운데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시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스타하노프, 파샤, 파블릭, 추칼로프, 조야로 구성된 ‘호모 소비에티쿠스 5인방’¹⁾의 면면을 우선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알렉세이스타하노프(1905-77)



안젤리나 프라스코비아(1913-59)

1) 이들에 대한 정보는 러시아 위키페디아 사이트(Стаханов, Алек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Ангелина, Прасковья Никитична; Морозов, Павел Трофимович; Чкалов, Валерий Павлович; Космо- демьянская, Зоя Анатольевна 항목)와 리처드 스타이츠, 『러시아의 민중문화: 20세기 러시아의 연예와 사회』, 서울: 한울, 2008을 부분적으로 참조했다.

1935년 8월 단 6시간 만에 평소 1인 생산량의 14배인 102톤의 석탄을 캐내 소비에트의 영웅이 된 광부 스타하노프(Алексей Стаханов)가 전형적인 호모 소비에티쿠스적 신체를 대표한다. 이후 스타하노프 운동은 소비에트 노동자 운동의 중심점이 되어 퍼져 나갔다. 이에 비견될만한 여성 생산영웅은 안젤리나 프라스코비아(파샤)(Ангелина Прасковья:Паша)였다. 파샤는 소비에트 최초의 여성 트랙터기사로, 스타하노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첫 여성 트랙터반을 조직하여 2번이나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크렘플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1935년 그녀의 삶은 <아홉 명의 소녀들>이라는 미니드라마로 각색되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해피엔딩-여기서는 왕자와 결혼해 궁전에 들어가는 대신 크렘플 궁전에 입성한다-으로 끝을 맺는 그녀의 인생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닮았다.

노동자의 영웅 스타하노프와 파샤가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신체를 대표한다면,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영혼-사상을 대표하는 영웅은 소비에트의 순교자로 격상된, 피오네르의 영웅 파블릭 모로조프(Павлик Морозов)이다. 1932년 아버지가 ‘쿨락’임을 당당히 고발한 13세의 피오네르 파블릭은 아버지가 처형당한 뒤 친할아버지와 공범자의 손에 동생과 함께 인근 숲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것이 소비에트의 공식 신화이다. 오늘날 밝혀진 이 신화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파블릭은 죽음 이후 전설로 화했다. 그를 전설로 만드는데 단단히 입김을 불어넣은 이는 고리키였다. 고리키는 파블릭 일화를 ‘우리 시대의 조그마한 기적’이라고 일컬었다. 우랄 지방에 위치한 파블릭의 고향마을



파블릭 모로조프(1918-32)

은 피오네르들의 성지가 되었고 소년이 살해당한 숲 속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러 거리와 청소년 단체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소년의 삶을 다룬 영화와 가요, 오페라가 창작되었다. 콤포모론은 파블릭의 생을 영화화할 것을 명령했고 투르게네프의 『베진 초원』과 낭만화된 파블릭의 삶의 슈젯이 결합된 대본이 완성되었으며 이 대본으로 에이젠슈테인이 동명의 영화를 만드는데 착수했으나 이 영화는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내공을 가진 호모 소비에티쿠스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달한 과학적 성취를 몸소 체현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도 필요했다. 1930년대 소비에트 산업기술발전의 도상에서 비행사는 소비에트 신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비행사 발레리 추칼로프(Валерий Чкалов)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당연했다.

1937년 추칼로프는 모스크바를 출발해 북극을 거쳐 미국, 밴쿠버로 63시간 25분에 걸쳐 쉬지 않고 비행하는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이로써 그는 인민 영웅의 자리에 오른다. 1938년 새 기종의 비행기를 타고 시험비행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동시대인들은 그의 사고 배후에는 베리야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난도 스텐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스크바예술극장의 배우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미남인데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에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 한 파일럿의 삶은 그 자체로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탈린과 함께 한 발레리 추칼로프(1904-38)

것이였다.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 신 인류(новый человек)의 모범이자 우상이었던 추칼로프에 관한 수십편의 비행영화들이 3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제작되었다. 1941년 칼라토조프는 <발레리 추칼로프>라는 가상의 전기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승리의 날개Wings of Victory>로 출시되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미국기자가 “당신은 부자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죠?”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이 질문에 추칼로프는 “예, 내게는 1억 8천만 명의 소련인들이 있습니다.”²⁾ 라고 답한다. 소비에트의 형제에 숭배가 그 최정점에 달한 지점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추칼로프는 소비에트의 진정한 낭만주의 영웅으로 각인된다. 한편, 하늘의 영웅 추칼로프의 신화화는 소비에트의 또 한 명의 하늘의 영웅 가가린의 신화화로 이어졌다. 1961년 최초로 달을 밟은 우주비

2) 리처드 스타이즈, p. 155.

행사 유리 가가린의 허구화된 전기와 민중담에서 가가린은 추칼로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이다.³⁾

1940년대 들어서면서 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소비에트는 전쟁기계로서의 새로운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필요로 했다. 전시 소비에트에서 가장 먼저 영웅화된 인물이 여성 파르티잔이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조국*родина*을 상징하는 여성성의 이미지와 여성영웅의 이미지가 이로써 정확히 겹쳐졌다. 조야 코스모데미얀스카야(*Зоя Космодемьянская*)는 전쟁 초기 독일군에 의해 극한의 고문 속에서도 동지를 팔지 않았던, 그 덕분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진 여고생 유격대원이었다. 조야의 신화는 시, 드라마, 라디오, 영화, 사진, 조각상, 동화 등으로 재창조되어 전시 소련인들의 엄혹한 생활과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파사가 신데렐라라면 조야는 ‘백설공주’의 소비에트 버전이라 하겠다. 물론 동화와 같은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고결한 공주가 모진 고난을 겪은 뒤 죽음으로서 최고의 행복에 다다른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동화보다도 더 동화적인 결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44년 레프 아르슈탐의 극영화 <조야>는 바로 이와 같은 조야의 삶을 스탈린식동화로 각색한 작품이다.⁴⁾ 영화 속에서 교수대에 올라 러시아를 위해 죽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하며 천사처럼



조야 코스모데미얀스카야(1923-41)



전쟁포스터 <어머니-조국이 부른다>

3) 리처드 스타이즈, p. 248.

4) 리처드 스타이즈, p. 199-201 참조 바람.

미소 짓는 용감한 조야의 품성은 어린 시절부터 단련되어 온 것이었다. 영화는 조야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모범생이자 레닌, 스탈린 및 1812년 대 나폴레옹전쟁 영웅들의 찬미자이며 파벨 코르차킨과 추칼로프의 공훈에서 영웅됨됨이를 학습했음을 보여준다. 조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련의 모든 문화적 아이코는 그 취향과 습관에 있어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건전성 여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III.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누구인가?

강철보다 더 단단히 단련된 소비에트의 수많은 스타하노프들, 파샤들, 파블릭들, 조야들과 같은 영웅적 호모 소비에티쿠스들을 떠올릴 때면 서구인을 포함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본격적으로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앞서 일단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용어에 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이는 A. 지노비요프(A. Зиновьев)로, 그의 동명의 에세이 형식의 소설 『호모 소비에티쿠스』 초반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발견된다.

똑똑하고 점잖은 서구인들은 우리를 호모 소비에티쿠스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런 유형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그 존재에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명칭은 우리에게겐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뜻으로 들린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걸 모른다. 우리가 최초로 이런 새로운 인간 유형을 세상에 내놓았더니 50년이 지나서야 서방세계는 겨우 새로운 이름 따위를 지어낸 것으로 우리가 한 일에 비해 자신들이 훨씬 더 역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속좁은 소견은 비웃음을 받아도 싸다.⁵⁾

5) A. Zinoviev, *Homo sovieticus*, Boston: New york, 1985, p. 32.

나아가 지노비요프는 이 책의 서문에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소비에트식으로 줄여 ‘호모소스’라고 부르겠다고 밝힌다.

이렇게 서방세계에서 소련인советский человек을 일컫는 말로 고안된,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이 용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서방세계에서 비롯한 명칭인 호모 소비에티쿠스 대신 ‘소복совок’⁶⁾이나 ‘코뮤냐카коммуняка’라는 말로 자신들을 규정하는바, 두 용어 모두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다시 한 번 지노비요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소복이라는 단어 사용 속에는 소비에트 시대와 그 시대가 만들어낸 인종에 대한 경멸감이 확연히 드러나있다⁷⁾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아래 나열된 8가지 항목은 러시아인의 자기규정 속에 드러난 호모 소비에티쿠스, 즉 ‘소복’에 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 유아론과 부계중심. 이로부터 정부(국가권력)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희망이 생겨난다.
2. 평균치의 승리. 이로부터 부자와 성공한 자들을 향한 증오가 표출된다.
3. 신화화된 인식과 자발적 사고의 부재. 이로부터 적을 숭배하고 죽음을 숭배하며 미래에는 행복만이 존재할 것이란 믿음이 생긴다.
4. 현실감각을 상실했으며 그 대신 공식문학 등과 같이 금기시되지 않은 영역에만 머물고자 한다.
5. 여론 조작이 용이하다.
6. 모두가 평등하다는 신화를 가능케 하는 듯한 낮은 수준의 생활수준. 모두가 평등하게 거지처럼 산다.
7. 사유재산 경쟁시스템의 약화(6번과 연관됨). 상부상조한다는 느낌과 연관된다.
8. 규격화된 국가의무교육의 극대화: 유치원→학교→군대→고등교육/ 혁명아

6) 'совок'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모래장난 할 때 가지고 노는 조그만 삽을 뜻한다. 이 명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http://www.topos.ru/article/6455> 참조 바람.

7) http://www.situation.ru/app/rs/lib/russ_tragedy/russ_tragedy.htm. 1.

등(октябрыта)→피오네르→콤포소물→당⁸⁾

이상은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Homo Sovieticus: Был ли он и что от него осталос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BBC의 2005년 4월 19일 특별방송에 참여한, 국적을 밝히지 않은 유리Юрий라는 남성의 글이다.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는가?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위치는 오늘날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국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힌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가진 결함만을 보았던 유리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존재 유무를 무화시키려는 시도도 왕왕 발견된다. 가령, 러시아 국적을 밝힌 나탈리야 보리소브나라는 여성은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순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구소련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신적인 노예상태’로 살아야만 했던 구소련인의 아픈 과거에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이름표를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녀는 지나간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신(新)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해당 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새로운 러시아인에게 그 어떤 이름을 붙이던 간에 소복이라는 끔찍한 이름만 아니면 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⁹⁾ 부정하고 싶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구소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 러시아인의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된 상태의 복합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가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명칭을 피해 예들려 지적한 구소련인의 ‘정신적인 노예상태’는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특성을 한 마디로 ‘상부권력에 대한 숭배와 아첨’으로 정의한 러시아인 알렉세이의 견해¹⁰⁾와 조응한다. 한편, albor.ru라는 아이디로 의견을 보낸 이는 소련인은 호모 소비에티쿠스와 그 어떤 연관도 갖지 않는다¹¹⁾고 단언한다. 이 단언적 진술의 이면에서

8) http://news.bbc.co.uk/hi/russian/talking_point/newsid_4461000/4461341.stm.
часть 1. p. 6.

9) *ibid.* p. 3.

10) *ibid.*

11) *ibid.* p. 4.

‘구소련인=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공고한 기존의 공식에 포함된 부정적 함의를 완강히/애써 거부하는 러시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각기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논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용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별다른 사전 정의 없이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이 글의 1장 역시 이와 같은 식으로 작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용어를 채우고 있는 함의 역시 꽤나 다양하다는 사실도 증명한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용어가 선규정하는 의미는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을 내포하는가?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서구 유명론자들의 유희에 불과한 것인가? 과연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텅 빈 기호에 불과한가?

80년대 이 용어가 유행하던 때,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천착해 지노비요프는 자신의 동명 소설에서 명명 행위 자체가 그 본질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이때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서방세계Запад로 향한다. 그는 서방세계가 소련의 참 현실을 부정한 채 인공적으로 구축한 소련론에 근거해 창조해낸 신화적 존재로서의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사회학적·철학적으로 접근해 이 존재의 본질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소설 집필에 착수했다. 그는 서구인들이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부정적인 측면들, 단점만을 보려는 근시안적 태도에 분노한다. 물론 망명객이었던 그의 입장이 문제의식을 첨예하게 하고 또 그 문제를 해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실은 말 할 것도 없다.

IV. 지노비요프의 『호모 소비에티쿠스』

지노비요프¹²⁾는 솔제니친 이후 러시아 제3망명세대 가운데 가장 걸출한

12) 1922년 도장공의 아들로 태어나 모스크바 철학부에 입학한다. 18살에 스탈린 암살기도 서클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되나 도망쳐 붉은 군대에 입대, 때마침 발발한 2차대전에 참전하여 훈장을 받았다. 전쟁 후 학교로 돌아가 1954년 「칼 맑스 『자본론』의 논리」로 석사학위를 받고 1960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모스



지노비요프가 그린 영역본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표지 그림(1985)

지식인으로 평가된다. 19세기 역사학자 랑케가 그랬듯 지노비요프 역시 여든 너머까지 살면서 20세기 역사의 부침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학자였다.

지노비요프의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1981년 뮌헨에서 창작된 1인칭 수기 형식을 띤 소설로, 200여개의 단장(短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에 그 영역본이 출간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1991년에서야 러시아어본이 출간되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풍자가가 신랄하게 묘사한 서방사회와 소련은 둘 다 나름대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로 인해 소설 속에 묘사된 거의 모든 상황이 웃음을 유발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망명한 소련의 인텔리겐치아이이며 사회학자라는 점에서 실제 지노비요프와 같다. 그러나 소설 속 ‘나’는 가족도 없이 혼자서

크바대학 논리학부 학과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많은 학술적 업적을 쌓았고 이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76년 대학에서의 직위를 박탈당한 뒤 집필하게 된 비학술적 에세이들로 이후 ‘사회학적 에세이’의 대가로 평가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성과물인 『겁나는 상부Зияющие высоты』를 스위스에서 출간함으로써 소비에트에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수형생활이나 망명생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1978년 8월 가족과 함께 독일, 뮌헨으로 망명해 뮌헨대학 논리학부에서 일하며 1999년까지 살았다. 1999년 러시아로 돌아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비에트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한다. 고르바초프 시기부터 러시아에 팽배해진 서방사회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21세기 러시아의 문제가 미국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후기 저작들에서는 서방사회보다 대략 50년을 앞선 소비에트 시스템이 서방사회의 실수로 붕괴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06년 사망 후 노보테비치 수도원에 안장되었다. 주요작품은 『Зияющие высоты』,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В преддверии рая』, 『Записки ночного сторожа』, 『Жёлтый дом. в 2-х томах』(1980), 『Иди на Голгофу』(1985), 『Живи』(1989), 『Глобальный чело-вейник』(1997), 『Кадастройка』(1988), 『Искушение』(1991), 『Русская трагедия(Гибель утопии)』(2002) 등이다. 이들 작품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풍자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들을 가지고 소비에트의 생로병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독일 소도시로 망명해, 망명객들을 위한 임시숙소에 거하며, 소련침차라는 혐의를 벗지 못해 계속해서 독일첩보기관의 심문을 받으러 다니느라 직업도 없는, 미래가 몹시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가족과 함께 망명해 바로 뮌헨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작가와는 명백히 차별되는 허구의 인물이다. ‘나’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자의로든 타의로든 망명을 선택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망명객이 아니다. ‘나’는 망명 초기 내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도 내게 조국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내겐 자유의지란 것도 없었다. 내게는 조국을 떠날 정치적, 경제적 등등의 여하한의 이유란 것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상, 다른 시대, 다른 차원의 사-공간에 와 있다. 그런데도 나는 망명자이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걸까? 이유는 내가 소련인이기 때문이다. 소련인에게는 그저 허울만의 망명만 가능하다.¹³⁾

망명 전 해외학회의 초대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그래서 소비에트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지노비요프의 망명 초기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면서 동시에 소련을 벗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소련인으로서의 자신의 특수한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었던 망명객 지식인 ‘나’의 고뇌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나’가 망명을 택한 이유는 “망명지에서 2년간 서방세계를 공부해 소련이 보다 신속하게 고통 없이 서방세계를 접수할 방법을 모색하려는 비밀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연구결과가 소련상부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차후 고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조금은 장난스럽게 망명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첫 번째는 2년이라는 기간이 서방세계 전체를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로는 내 기획의 실행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서방사회를 알면 알수록 내 기획의 가능성이

13) Zinoviev, p. 31.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는 점차 깨닫게 된다.¹⁴⁾

이렇게 정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비판과 풍자의 더듬이는 ‘우리’와 ‘서방세계,’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를 향한다. 이런 ‘나’의 어조는 엄숙하지도 않고 훈계적이지도 않다. ‘나’는 시종 시니컬한 태도를 견지한다. 두 세계의 문제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관찰·비판할 수 있는 경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도 그에게는 이점인데다가 여기에 논리철학자·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재능과 역량이 첨가되어 놀라운 증폭효과를 가져온다.

소설 속 풍자의 대상은 극히 구체적이다. 임시숙소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소련망명객 군상이 제1풍자의 대상이며, 이에 못지않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침병인 독일의 현실도 가감 없이 풍자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갖 종류의 폭력과 범죄, 서구인들의 이기주의와 독선, 탐욕, 저급한 문화 등은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가진 단점보다 나은 게 없는 수준임이 그의 관찰을 통해 드러난다. 이를 압축해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설 속 중요한 모티프의 하나이기도 한, ‘건설 중인 휘황찬란한 고층빌딩’이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올라가는 높은 층수와 금빛 나는 외벽으로 마감된, 첨단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고층빌딩은 ‘나’의 눈에 마치 천국이나 지옥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이다. 소설 전체에 걸쳐 군데군데 삽입된 이 풍경은 건축 중인 이 멋진 건물의 용도를 짐작조차 못하는 ‘나’는 궁금증을 점점 더 키워나간다. 이 궁금증은 결국 소설의 말미에 와서야 풀리게 되는바, 마침내 완성된 건물은 “내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이나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푸른 하늘 속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었”¹⁵⁾고 그 외벽에는 또렷하게 ‘은행’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렇게, 우뚝 솟은 자본의 상징인 은행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그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공산주의만큼이나 자본주의 역시 그 위험을 내부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본-은행-건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처리한 간결하면서도 성공적인 결말부이다. 뿐만 아니라 다

14) Zinoviev, p. 122.

15) Zinoviev, p. 206.

음과 같은 ‘나’의 도발적인 외침은 서구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나는 소련에 살적에는 민주국가에서 살기를 꿈꿨다. 원하는 당에 가입하거나 자기 당을 만들고 데모에도 참여하며 파업에도 참가해 다 폭로해버리는 거다! 이걸 멋지긴 하지만 삶은 아니다. 서방사회에서 좀 살아보고 나니 내 꿈은 180도 그 방향이 바뀌고 말았다. 지금은 좌익 당파를 금지하고 데모대를 해산시키며 파업을 억압하는 훌륭한 경찰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꿈꾼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 따윈 꺼져버려라!¹⁶⁾

소설 속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인물은 소련망명객들이다. ‘투덜이 нытик,’ ‘염세가 циник,’ ‘재담꾼 шутник,’ ‘정열가 энтузиаст,’ ‘혁명가 революционер’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서구로 망명한 소련인의 유형은 대략 5 타입으로 나뉜다. 투덜이는 소련에서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방사회에서도 비전을 찾지 못해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마침내 숙소에서 조용히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염세가와 재담꾼은 시종 시니컬한 태도를 견지하며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밥벌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하는 극히 인간적인 평범한 면모를 드러낸다. 정열가는 서방사회에서 소련을 폭로하는데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유형으로, 자신이 모 든 소련 반체제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역시 밥벌이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현실과 타협한다. 물론 정열가는 이런 현실적 타협에도 열정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가져다 대는데 바쁘다. 저자는 이렇게 “선동과 기만, 아첨, 분노, 눈물, 방해공작 등의 수단으로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정열가와 같은 불쌍사나운 소련인 유형은 ‘소비에트의 피조물 Soviet creature/совет-ская тварь’¹⁷⁾이지 호모소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혁명가는 최초의 혁명의 이상을 진정으로 소련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이 요청된다고 역설하는 신문을 발행한다. 신문발행을 돕고자 제

16) Zinoviev, p. 33.

17) Zinoviev, p. 89.

공되는 서방사회의 지원금을 가지고 주로 휴양지를 찾는 것이 그의 주업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들 외에도 소련에서 서구로 망명하기만 하면 자신을 최고의 작가로 간주하며 역사적 사명을 띠었다고 생각하는 3류 예술가 유형이 재능 없는 소설가 부부를 통해 풍자된다. 소련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의 작가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보다 더 신랄한 풍자의 독화살을 맞는 유형은 러시아 구귀족풍의 부인이다. 이 여인은 소련에서도 꽤나 잘 살았지만 서방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동경해 마지않아 망명한 케이스이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기 위해 부인은 서방사회의 지원금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그녀는 소비에트에 구러시아의 정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걸고 내세워 단체를 만들어 반소저널 활동을 벌인다. 이런 그녀야말로 뺏속까지 속물이자 위선자다. 이들과 ‘나’가 부대끼는 과정에서 예측하다시피, 끊임없는 희비극적 상황이 연출되며 그 에피소드들은 차라리 년센스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년센스로 가득 찬 상황에 센스-논리를 부여하고자 부단히 애쓰는 한 논리철학자의 노력은 때로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소련망명객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구축된 소련과 소련인에 대한 서방사회의 정보가 그 정확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리란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소설 속에서 ‘나’가 서방세계가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 이유는 서방세계의 첩보기관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소련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대목¹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지노비요프는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서방세계의 이론에서 파생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한다. 서방세계가 상정한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존재로서의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뼈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미 사물화된 고정관념에 가깝다며 저자는 호모소스로밖에 살 수 없는 이들의 물적 토대를 경시하는 서방세계의 성급한 논리화를 비판한다. 저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간=호모소스’라는 기계화된 서구의 공식 여기저기에 구멍을 만든다. 이

18) Zinoviev, p. 39.

로써 소설 주된 목표인 “소련인은 권력에 기만당하고 위협받는 존재”라는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진 신화”¹⁹⁾ 허물기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저자가 조목 조목 지적하는 호모소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련인은 매사에 창조적으로 접근하라고 배워온 사람들이다.²⁰⁾
- 2) 호모소스는 결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혁명과 당파성으로 단련된 호모소스에게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²¹⁾ 절대로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호모소스는 그 본질상 권력에 동참하는 존재이다.²²⁾
- 3) 호모소스는 그 본성 상 타고난 지도자요 체제 비판자이며, 또한 KGB요원이다.²³⁾
- 4) 호모소스의 영혼은 전체주의/집단주의 생활에 깃들여 있다. 집단을 잃는 것이 호모소스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이다.²⁴⁾
- 5) 호모소스는 서구인에 비해 형제애가 훨씬 더 강하다. 이는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전체주의의 결과이다. 이런 점만 보아도 호모소스를 도덕적이다 혹은 비도덕적이다라고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 6) 소련인의 의심많은 성격은 민족성이 아니라 국가적 특성이다.²⁶⁾

1), 2), 3)항은 이데올로기와 당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호모소스에 대한 선입견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혁명을 통해 강철처럼 단련된, 변질되기 이전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호모소스의 원형질이 갖는 미덕을 역설한다. 앞서 3

19) Zinoviev, p. 31.

20) Zinoviev, p. 18. 이 항목은 사회주의 노동자의 노동은 단순한 육체활동이 아닌, 진정한 영감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예술작품으로 취급되어야 했던 소비에트 현실에 대한 이중적 아이러니가 담긴 진술이다. 노동과 예술 활동의 유비관계에 관해서는 심지어, 「푸슈킨 공동체와 호모 소비에티쿠스」,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6, 2007, 386-9쪽을 참조 바람.

21) Zinoviev, pp. 35-6.

22) Zinoviev, pp. 53-4.

23) Zinoviev, pp. 71-2.

24) Zinoviev, p. 84.

25) Zinoviev, pp. 54-6.

26) Zinoviev, p. 21.

장에서 보았던 호모소스의 단점에 대한 항변의 근거로도 내세울 수 있는 대목이다. 4), 5)항은 서구 개인주의에 대한 반론이자 동시에 소비에트 체제의 집단주의적 특성이 어떻게 새로운 시민성을 형성했는가, 혹은 그 반대로 새로운 시민정신이 체제를 공고하게 다져갔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체제에 순응하고 당에 복종하는 호모소스의 수동성은 전체주의/집단주의를 떠나서는 사고될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데올로기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모소스들의 사회는 저자가 규정했듯이 “정태적이고 교조적이지 않은, 마치 거대한 카멜레온과 같은”²⁷⁾ 변화무쌍한 곳이며 이런 환경에 조응하는 호모소스 역시 변화무쌍한 내면세계를 가지며 적응력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다. 6)항은 한때 ‘크레믈’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호모소스들의 의문스러움이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된 특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바, 해당 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물이해가 논리 없는 논리화의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시놉스키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진술한바 있다.

소련인은 모두가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순한 과제가 언제나, 어떻게든 위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이다.²⁸⁾

생존을 위해 ‘일하는 척 하고 남을 속여’²⁹⁾가며 범법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호모소스의 추한 모습이 국가시스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서방세계는 소련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소련인에 관한 거짓된 그림’만을 보려고 한 것이다. 서방사회는 “자신의 척도로 소련인의 삶을 재단하는”³⁰⁾ 실수를 범하는 줄 모른다/애써

27) Zinoviev, p. 74.

28) A. Синявский, *Основы совет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М., 2001, с. 264.
<http://ishevelev.narod.ru/sinyavsky.htm>에서 재인용.

29) 지노비요프가 호모소스의 가장 추한 측면으로 지적한 특징이다. Zinoviev, p. 138.

30) Zinoviev, pp. 99-100.

모든 척 한다. 이런 까닭에 진실을 포착한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논리화하려는 수고를 기꺼이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³¹⁾ 그 결과 소련의 막대한 군사력과 생활용품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자기기만적인 측면만이 서방세계에 의해 극단적으로 과장되고 유포되어진다.³²⁾

지노비요프와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비슷한 시기에 소련에 관한 에세이를 집필한 작가 보이노비치(В. Войнович)³³⁾는 이런 사정을 보다 더 침착한 어조로 전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서방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선전가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내가 소련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많은 질문을 해온다. 그들은 전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초능력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며 뭘 하고 사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서방사회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때로는 짜증이 난다. 때로는 나는 우리들도 매한가지 인간이라는 점을 인내심을 가지면서 설명한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생활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고 죽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에는 아무런 반대가 없다. 그러나 자세한 묘사가 필요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시 안개에 쌓인다.³⁴⁾

이런 안개를 걷고 보면 생활용품의 극단적인 결핍상황이란 것도 다각적인 시점을 제공한다. 오히려 검소함이 몸에 밴 소비에트의 삶은 서구 자본주의의 풍요가 가져온 해악과 암암리에 비교되면서 강조되기도 한다.

31) Zinoviev, p. 195.

32) Zinoviev, p. 121.

33) 타지키스탄 출신 소련 작가. 1969년 풍자소설 『병사 이반 촌킨의 생애와 특별한 무용담』 Жизнь и необычай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солдата Ивана Чонкина』으로 필화사건을 겪게 되고 1974년 러시아작가동맹에서 영구 제명되어 추방된다. 1880-1992년까지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보냈다. 지노비요프의 영역본 에세이는 1985년에, 보이노비치의 영역본 에세이는 1986년에 출간되었다.

34) 보이노비치, 『개혁을 바라는 혁명 70년의 소련사회』, 지식산업사, 1988, 14쪽. 에세이의 원제는 ‘Антисоветский советскийсоюз’다.

가령, 나는 바지 한 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바지가 두 벌 있다고 해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썩은 감자만 먹어도 나는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선한 비프스테이크를 먹는다 해도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되면 기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협소한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이다. 그렇지만 나는 공산주의 천국을 믿지 않으며 맑시즘과 소비에트의 삶의 방식을 그 어떤 반공산주의자나 소비에트 <반체제인 사들>보다 더 가열차게 비웃어 줄 수 있다.³⁵⁾

‘태어나서 생활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고 죽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그들이 어떤 체제 속에 속해있던 간에-에게는 이념이란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지를 지노비요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세일 기간에 청바지와 무스탕을 사는 것이 염원”³⁶⁾인 호모스스들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것이 평범한 호모소스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³⁷⁾

해서, 『호모 소비에티쿠스』에서 지노비요프가 지칭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이런 평범한 호모소스가 아니라 ‘맑시즘과 소비에트의 삶의 방식을 그 어떤 반공산주의자나 소비에트 <반체제인사들>보다 더 가열차게 비웃어 줄 수 있’는 타입과 같은 지적인 인간으로 한정된다. 즉,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명칭에 값하는 인간은 바로 이데올로기에 자의식-그 결과가 때로는 과격으로 치달게 되더라도-을 가지고 접근하는 유형인 것이다.

소설 말미에 삽입된 <호모소스>라는 단장에서 지노비요프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며 호모소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한다. 4페이지 가량에 걸쳐 수사적으로 고양된 톤과 논리학으로 무장한 꽤나 장황한 내용을 간추려 인용하기로 하자.

35) Zinoviev, p. 119.

36) Zinoviev, p. 103.

37) Zinoviev, p. 91.

호모소스는 소련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호모 소비에티쿠스 또는 소련인을 말한다. 모든 소련시민이 호모소스는 아니다. 모든 호모소스 역시 소련시민은 아니다. 호모소스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은 극히 다양한 시대와 극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발견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인간은 호모소스가 되었다<...> 호모소스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적용한 결과로서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호모소스는 그를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을 생각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호모소스의 환경은 호모소스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호모소스들의 사회에는 그 구성원들 각각의 가치와 행동의 평가기준이 존재한다. 이 기준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준과 유사하다. 그것들은 상황에 의존한다. 이런 관점에서 호모소스는 극히 유연하고 유동적이다. 호모소스는 사회·심리학적 상황과 가치평가의 모호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진폭이 크다고 하겠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토대 하에서 상황에 의거하여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존재가 된다<...> 호모소스의 자질ГОМОСОБСТВО는 전 세계로 전염된다. 이는 인류의 가장 심오한 질병인데 왜냐하면 이 질병은 인간존재의 본질에도 침투해들 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 자신을 호모소스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호모소스의 독을 삼켰다면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자들을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사람들이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이 피조물이 쓴 월계관의 배아라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 자신 또한 호모소스이니까.38)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의 상호작용의 변증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지노비요프는 호모소스라는 존재의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을 지적한 뒤 그 일반성을 논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노비요프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상황의존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케 해주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호모소스로서의 삶을 살았던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 속에서 지노비요프는 인간이란 결코 계량될 수 없는 존재라는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소설은 러시아고전소설의 묵직한 고뇌·인간에 대한 성찰에 기대고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니코프를 통해 한

38) Zinoviev, pp. 196-200.

세기 전에 전했던 ‘변증법 대신에 도래한 삶’에 대한 깨달음은 이 작품 속에서도 울려 나온다. 20세기 후반 소련인과 서구인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반 인간 삶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진정한 소설에 값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철학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소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예술성을 드러낸다. 가령, ‘잠꼬대’로 시작해 ‘잠꼬대’로 끝나는 형식적 완결성이나 반복되는 다양한 라이트모티프들(현대식 건물, 운명, 서방세계, 우리들, 심문 등)은 작품의 미학적 측면을 보강하는 요소이다. 한편, 장르적 측면에서도 소설은 새롭다. ‘나’ 스스로 자신의 글을 ‘소설-밀고장-보고서-학술논문-роман-донос-отчёт-трактат’이라고 규정짓는데 아마도 이것이 작품의 장르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이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듯 보이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글들이 한데 모여 큰 줄기를 이루어 한 편이 소설이 되어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시니컬한 웃음 뒤로 수많은 불면의 날들을 창작의 힘으로 이겨냈을 한 고독한 망명객의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아마 ‘나’라는 인물의 인간적 고뇌와 번민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소설의 주인공인 ‘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노비요프의 alter ego이기도 한 주인공 ‘나’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모순된 내적 세계를 가진 인물이다. ‘나’는 소련이 밀파한 간첩인지를 서구첩보기관에서 심문받는 과정에서 소여로 주어졌던 자신의 ‘호모소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꾀게 된다. 그러는 사이 ‘나’만 남겨둔 채 숙소에 함께 머물던 망명객들은 모두 자신의 살 길을 찾아 타지로 떠난다. 소설은 ‘나’가 결국에는 무혐의로 조사기관의 심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지만 ‘나’가 실제 KGB요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심문과정을 통해서 소련인으로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로서 교육받은 이데올로기가 가진 맹점이 서방세계가 이론적으로 창조해낸 소련인의 신화가 가진 맹점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나’가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2년여 간의 심문과 망명생활은 ‘나’로 하여금 이념을 준거틀로 삼았던 기존의 인식의 지평

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bystander/староннийнаблюдатель’³⁹⁾ 시점에서 현실을 평가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찾게 해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모두가 ‘나’의 에세이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서방세계에 가는 이유는 서방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⁴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그리하여 정열가와 속물 귀부인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창조한다고 믿는, 즉 거대역사에 대한 망상(전 세계의 공산화/전 세계의 민주화)을 담지한 소비에트 권력과 서방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시스템을 주도하는 자들의 현실 외면과 오만이 불러오는 현대삶의 비극을 양쪽에서 목도한 자의 결론이다.

이것이 지노비요프가 ‘쓰레기통의 사회학socialology of the rubbish-bin/циология помойки’⁴¹⁾이라 명명한 연구의 결론이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나’는 임시숙소의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는데 버려진 쓰레기야말로 가장 생생한 실제 정보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으로 상징되는 더럽고 감추고 싶은 것도 포함하는 인간 삶의 가장 내밀하고 구체적인 측면-배고픔과 무위도식, 술 마시고 잠담하는 사소한 일상도 반드시 포함되는-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관찰과 이로부터 촉발된 비판적 사유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냉철한 이해야말로 오늘날의 삶을 직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사회학자로서 또 논리학자로서의 사유를 끝내 놓지 않았던 ‘나’의 미덕이면서 동시에 지노비요프 소설의 미덕이다.

V. 나가며

보이노비치는 1986년 자신의 에세이 『개혁을 바라는 혁명 70년의 소련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명명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바 있다.

39) Zinoviev, p. 187.

40) Zinoviev, p. 195.

41) Zinoviev, p. 105.

나는 요사이 유행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부정확하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삼중의 의식을 가진 경멸스러운 인간이 소련연방 내에 있다. 그러나 서방사회에서도 역시 자주 그런 유형을 보게 된다.⁴²⁾

그로서는 ‘부정확하고 공평하지 않은’ 서방세계에 의해 선구정된 이 명칭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적 과부하를 제거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이 용어에 가려져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호모소스의 ‘평범한’ 삶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망실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 존재에 관한 진부한 일반화된 정의를 들먹이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지노비요프는 그럼에도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용어를 공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양립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을 자신의 작품 속에 비교적 잘 형상화해냈다는 것을 앞선 논의의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반복하자면, 저자의 현상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관찰과 이로부터 촉발된 비판적 사유의 깊이로 성취된 것이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호모 소비에티쿠스/소복/코뮨냐카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용어는 지노비요프와 보이노비치의 글이 나오던 80년대에 비해 별 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2010년 3월 12일자 kavkazcenter.com의 기사 제목은 <Vladimir Putin quickly mutates into homo sovieticus>⁴³⁾이다. 당시 기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푸틴의 공식연설을 꼬집은 기사이다. 채치 있는 제목이지만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여기서 잉여적인 기호에 불과하다.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며 권력에 아첨하는 노예근성, 무비판적 사고방식을 지닌 이념에 경도된 구소련 시민의 클리셰로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한, 지노비요프가 지적한 ‘고통 받는 재주를 타고난flair of suffering’⁴⁴⁾ 호모소스들의 생생한 삶의 이면을 복구하려는 노력-가령 요즘

42) 보이노비치, 21쪽.

43) <http://www.kavkazcenter.com/eng/content/2010/03/12/11600.shtml>

44) <http://news.bbc.co.uk/2/hi/europe/4760109.stm>

유행하는 소비에트 노스텔지어에 관한 연구 등- 역시 클리셰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노비요프의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부쳐진 3개의 제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두었던 저자의 모국에 대한, 역설과 아이러니로 점철된 애정이 예들러 전해지고 있는 이들 제사의 정조(情調)가 이후 지노비요프 저작의 내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 1)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흐르지 않거늘. (서양 속담)⁴⁵⁾
- 2)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치지도 않았을 터. (러시아 속담)⁴⁶⁾
- 3) 돌맹이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 투쟁하리. (소비에트 속담)⁴⁷⁾

❖ 참 고 문 헌

리처드 스타이츠, 『러시아의 민중문화: 20세기 러시아의 연예와 사회』, 서울: 한울, 2008.

보이노비치, 『개혁을 바라는 혁명 70년의 소련사회』, 서울: 지식산업사, 1988.

심지은, 「푸슈킨 공동체와 호모 소비에티쿠스」,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6, 2007.

ZINOVIEV, Alexander, *Homo sovieticus*, Boston, New york: The Atlantic Monthly Press, 1985.

<http://www.topos.ru/article/6455>

http://news.bbc.co.uk/hi/russian/talking_point/newsid_4461000/4461341.stm

45) The course of true love does not run smoothly

46) If he didn't like me, he wouldn't strike me

47) We will fight for peace until there isn't one stone left standing on another

<http://www.kavkazcenter.com/eng/content/2010/03/12/11600.shtml>

<http://news.bbc.co.uk/2/hi/europe/4760109.stm>

<http://ishevelev.narod.ru/sinyavsky.htm>

❖ ABSTRACT

On Zinoviev's *Homo Sovieticus*

Sim, Jieun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cept of 'homo sovieticus' by reviewing the sociological essay novel *homo sovieticus* written by Zinoviev who was one of the well-known dissident in Soviet Union period, and attempts to have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t is an interesting research topic that current Russia and Russians who get through the historical layers from Soviet to post-Soviet regime at the time current trend that allows to have various academic discussions of post-Soviet.

It is required to examine the past of Russia and Russian to make precise estimation of their current and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term of 'homo sovieticus' which is conventionally accepted.

This research aims at broad comprehension of homo-sovieticus by focusing on the Zinoviev's own understanding instead of the habitual use of the term which only contains ideological and political intention.

Key Words

호모 소비에티쿠스, 알렉산드르 지노비요프, 알렉세이 스타하노프, 안젤리나 프라스코비아(파샤), 파블릭 모로조프, 발레리 추칼로프,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

Homo Sovieticus, Alexander Zinoviev, Aleksei Stakhanov, Angelina Praskovya(Pasha), Pavlik Morozov, Valerii Chukalov, Zoya Kosmodemyanskaya

논문접수일: 2010. 10. 28.

심사완료일: 2010. 12. 03.

게재확정일: 2010. 12. 10.